



## “고유가 시대...에너지위기 뚫어라” 모토 시리즈 ⑧

# 이제는 에너지자원 개발이다 ‘산유국 꿈’ 안팎에서 일군다



석유공사 자주개발 원유 확보에 역량 총집중 해외생산광구 참여-탐사성공광구 개발 확대 동북아 에너지 네트워크-윤리경영체제 구축 석탄공사도 해외 유연탄 개발에 발벗고 나서

지난해 9월 21일은 산유국의 꿈을 타진한 날. 이어 11월 5일엔 그 꿈을 실현한 날로 우리 에너지계 역사에 남는다. 동해-1 가스전의 성공적인 생산 개시로 국민들은 에너지자원 개발에 있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35~40달러 수준

에서 등락하는 고착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거둔 한 가닥 희망 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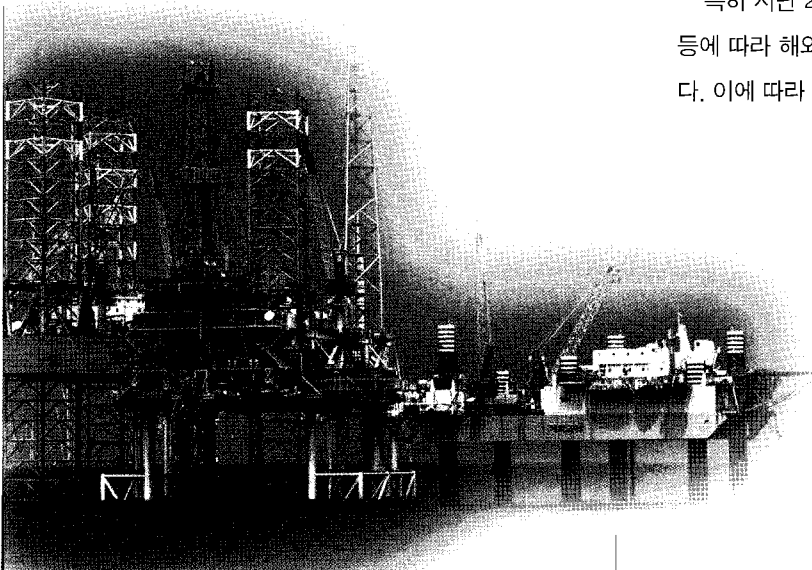
그러곤 새해를 맞았다. 그러나 떨어질 줄 모르는 고유가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초보적인 에너지 절약만으론 고유가의 파고를 넘기엔 우리경제가 역부족이다. 한정된 해외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하다.

우리나라는 국내 에너지소비량 중 석유의존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연간 석유소비량 및 석유수입량도 세계 6위 수준의 석유 에너지 대소비국 임에도 불구하고 원유 자급률은 아직도 4%선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난 2003년 하반기 이후, 국제 원자재 및 유가의 급등에 따라 해외 자원 및 에너지개발이 국가 의제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자원개발을 도맡아 해오고 있는 한국석유공사,

한국석탄공사, 한국광업진흥공사 등이 에너지 자원 개발에 발 벗고 나섰다. 국내에선 부존자원이 워낙 빈곤해 해외 진출을 대폭 확대하기 시작했다. 동해-1 가스전의 성공적인 생산이 계기가 됐다. 핵심사업 집중을 통한 전략목표까지 설정하는 등 올해의 경영방침으로 정한 것이다.

석유공사는 아예 적극적인 유망광



구 획득, 보유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창출, 성과 지향적 경영시스템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석탄공사 역시 해외 유연탄 개발 진출을 경영모토로 장기적 개발 체제 확립을 선언하고 나섰다.

광업진흥공사도 이에 뒤질세라 해외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공사는 국가 에너지 자립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을 구체화 하고 있다. 고유가 파고를 넘기 위한 에너지자원 개발의 현주소와 움직임, 나아가 과제를 점검해 본다.

» 동해-1가스전 상업운전 성과

지나치게 높은 석유의존도 개선을 위해 원유자급율을 높여야 한다는 명제는 필수 과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개발, 비축 및 원유도입선 다변화 등 안정적인 석유에너지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면서 국내외적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해 왔다. 그 결과 25년간의 끈질긴 도전과 노력 끝에 지난해 국내의 동해-1 가스전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우리나라 석유개발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성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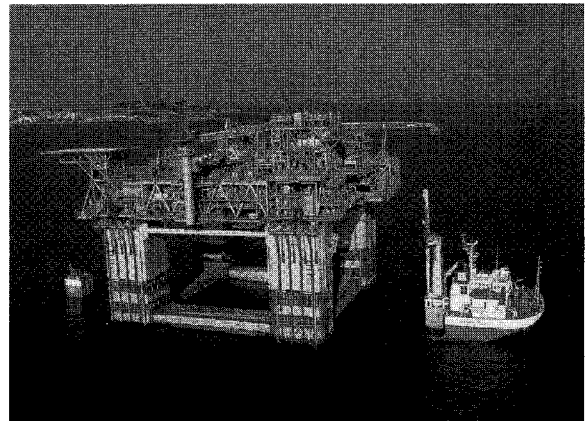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동해-1가스전 준공식을 가짐으로써 오랜 기간 국가의 염원이었던 산유국의 꿈을 실현시켰다. 이를 계기로 석유공사는 석유개발 사업을 통해 석유자원의 자립을 일구는 국가에너지기업으로 거듭 태어났다.

국내 석유개발사업은 우선 동해-1 가스전의 안정적인 가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174억 입방피트(LNG 환산 39만7000톤)의 양질의 가스를 생산하게 된다.

동해가스전은 선진국 수준의 안전환경 체계 확립 및 안정적인 설비 운영을 통해 산유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 석유공사 자원개발 전략

우리나라는 국내 에너지소비량 중 석유의존도가 거의 절반



을 차지하고 있다. 연간 석유소비량 및 석유수입량도 세계 6 위 수준의 석유 에너지 대소비국 임에도 불구하고 원유 자급률은 아직도 4%선에 머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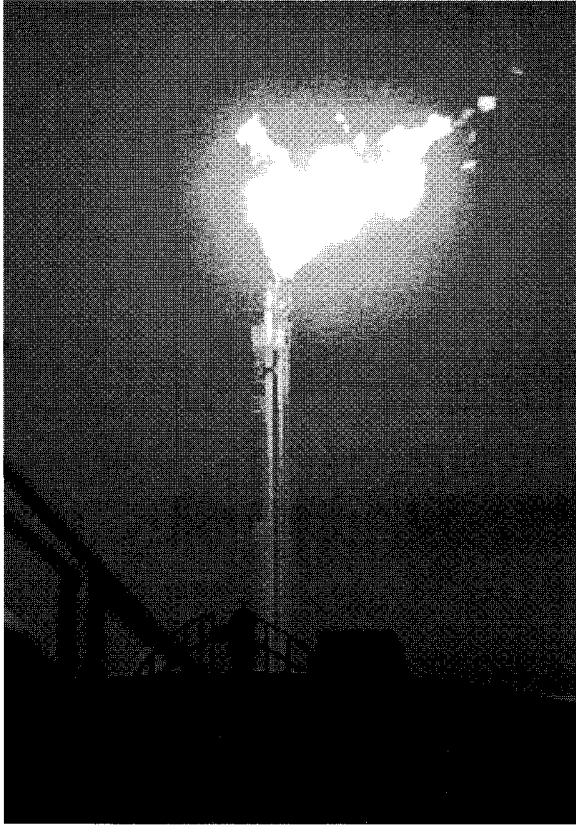
특히 지난 2003년 하반기 이후, 국제 원자재 및 유가의 급등에 따라 해외 자원 및 에너지개발이 국가 의제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 자원개발전문회사로 발돋움한 석유공사는 올해부터 해외자원 개발에 집중한다.

석유공사는 올해를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할 때로 인식,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가 고유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국내 대륙붕탐사 실시로 신규 유망구조 발굴 및 추가매장량 확보할 계획이다. 물리탐사 1000Lkm(서해 4광구), 탐사시추 1공(서해 2광구) 등을 추진한다.

» 자원개발 '해외로 해외로'

석유공사는 지난해 동해-1 가스전의 성공적 생산 개시로 해외유전개발에 집중키로 했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12개국에 걸쳐 19개 사업에 참여해 8개의 생산기지 확보, 2개 광구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 그리고 9개 프로젝트는 탐사중이다. 자원의 자주개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석유공사는 나아가



베트남 15-1 광구, 영국 킵틴유전, 리비아 엘리펀트유전 등에서 원유생산량을 증대하고 있다.

독자적인 개발참여사업에서 선진 메이저와의 전력적 제휴를 통해 해외유망광구를 확보하는 등 전략적인 지역에서의 자원외교사업도 펼쳐고 있다. 여기에도 러시아 카스피해 지역에서 원유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국내 대륙붕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희소식이 기대된다.

» 해외유전개발 의욕적

석유공사는 베트남 15-1, 영국 캡틴, 리비아 엘리펀트 유전 등 참여중인 생산광구의 생산량을 확대하고 베트남 11-2 광구 등 탐사성공광구의 적극적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동시베리아, 카스피해 등 전략 지역에 대한 공격적인 자산매입을

통한 신규사업도 늘린다.

해외유전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6개 탐사광구, 3개 생산광구를 추진한다. 이미 탐사에 성공한 베트남 11-2광구는 가스매매계약 체결 및 생산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중국 마황산서 광구 개발계획 수립과 생산준비 작업도 추진된다. 기존탐사광구에 대해서는 인니 NEM 1, 2 프로젝트, 에리프리아 해상광구(시추1공), 베냉해상2, 3광구에 대해서는 물리탐사와 시추 1공 탐사를 실시한다.

석유공사는 유전생산량 확대를 위해 베트남 11-2광구 개발 작업 및 리비아 엘리펀트(Elephant)유전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독자 송유관 건설도 추진한다.

엘리펀트 광구는 독자적인 송유관을 2005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는 Repsol사의 송유관을 이용해 원유를 이송하고 있다. 베트남 11-2 광구는 오는 2007년부터 본격적인 가스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

석유공사는 해외유전개발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올해부터는 전략지역에 대한 신규개발사업 역시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카자흐스탄의 Tenge 유가스전과 마함벳 광구의 매입계약 체결이 예정돼 있다. 러시아 동시베리아의 경우 캄차카 대륙붕 광구 및 사할린 해상 베닌스키 광구 본계약 체결 및 탐사사업 추진되고 이외에도 예멘 70 탐사광구(2005년 1~2월경 PSA체결 예정), 중국 Daan 광구 등이 추진된다.

이러한 의욕적인 해외유전개발사업은 석유개발 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석유개발사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6대 사업별 포커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개발사업 ■■ 석유자급을 제고를 위해 신규 유망광구의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생산광구의 자주개발원유 최대 확보에 사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자주원유개발율 10%의 2008년 달성을 주도하기 위해 베트남 15-1광구, 리비아 엘리펀트 유전, 인도네시아 SES광구 등 기존 탐사성공광구의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베트남 11-2광구 등 탐사성공광구 개발



과 9개 신규 유망광구에 대한 참여를 추진한다.

**국내 대륙봉사업** ■■■ 지난해 7월부터 생산을 개시한 동해-1 가스전의 생산 안정화와 인근 유망구조의 추가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탐사를 추진하는 등 국내 대륙봉 개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석유비축사업** ■■■ 서산기지 준공을 계기로 제품 및 시설 등 비축자산의 종합적인 연계 활용을 통한 비축사업 역량 강화로 비축목표를 적기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비축유 트레이딩 및 국제공동비축사업 활성화 등 동북아 석유물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를 추진키로 하고 동북아 주요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추선·건설사업** ■■■ 시추선사업의 수익향상을 위해 시추조업을 극대화하고 베트남 11-2광구 가스전 설계·제작의 감독업무 수행 등 공법개선 및 보유기술 접목을 통해 활용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석유정보사업** ■■■ 국내·외 석유정보 조사·분석 역량과 정부정책지원 및 석유안보 확보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 대외전문가 네트워크 구축·활용과 해외 전문교육 확대, 시행을 통해 국제 석유정보 조사·분석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시스템 조직문화** ■■■ 윤리경영체제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한편 지난해 도입한 전사적 디지털 경영체제 구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 **석공도 해외 유연탄 개발**

올해는 정부가 2001년부터 시행해온 '석탄산업 장기계획'의 최종 사업연도로서 향후 석탄정책 방향 설정에 기초가 되는 해이다.

석탄공사가 지난해 수립한 '장기경영혁신 계획'의 원년으로서 대내외적으로 경영혁신에 대한 성공 여부를 가늠하게

해이기도 하다. 석탄공사는 올해는 좀 더 발전적인 계획을 갖고 경영정상화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해외 유연탄 개발 진출과 이의 장기적 개발 체제 확립에 주력한다. 나아가 경제적 생산체제 확립 과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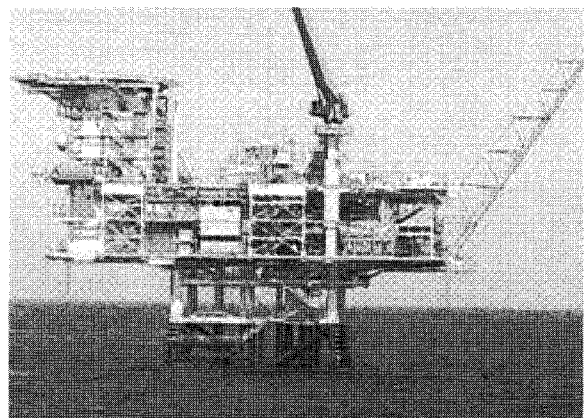
석탄산업 합리화정책 시행이후 석공은 정부정책에 순응해 지속적으로 감산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과도한 감산은 고정비의 부담을 가중시켜 생산원가를 급상승케 했다. 하지만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해 연탄 수요가 증가,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석탄공사는 이 같은 환경 변화와 채산성 등을 감안할 때 다소의 증산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는 생산 규모를 합리적 수준으로 재정비, 경제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해외 유연탄 개발사업에 적극 진출키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과 최대 공급국가인 중국에서의 내수 확대로 산업용 유연탄의 수입이 큰 차질을 빚어 가격 급등은 물론 소요량의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유연탄은 석유와 함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국가 산업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에 직결된다. 따라서 지난 50여년간 국내석탄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과 인력, 그리고 과거 20여간 무연탄 수입 업무 담당 경험을 활용, 해외 유연탄 개





발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산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라는 안보적인 측면과 석탄산업을 선도하는 공사의 역할을 감안할 때 해외 유연탄개발사업 진출은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게 공사 측의 올해 당면과제다.

석탄공은 나아가, 최근의 에너지 수급 환경의 급변에 따라 그동안 폐광과 감산만 추진해왔으나 부존 자원의 합리적 개발이란 차원에서 석탄정책에 다소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하부개발에 필요한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폐광된 인접 광구까지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계획이다.

» 정부 기반조성 적극적

정부가 올해 에너지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자원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해외자원개발 민관전략협의회’를 정례화 한다.

대통령까지 나서는 총체적 지원체제를 구축,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확보하는데 적극적이다.

나아가 정부는 지난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자원부국인

국가들을 상대로 거둔 자원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해외자원 선점에 나서기로 했다.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최근 원유가 급등과 원자재 수급난이 가중되면서 국가 경제에 빨간 불이다. 중요한 것은 자원확보다. 자원을 얼마나 많이 개발하고 확보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는, 이른바 ‘자원전쟁’으로 일컬어지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편다. 정부는 광진공을 통해 2013년까지 주요 광물자원의 자주개발률을 현재보다 50% 높이고, 이를 수행하도록 특용자금 출자전환이나 자원개발 수익금의 재투자, 매출액의 일정비율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민간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재무보증을 서 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한-러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분야 후속조치를 취하고, 양국 자원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모색한다. 또 러시아와의 에너지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기반조성에도 나선다.

정상회담시 논의됐던 천연가스 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간 가스협력 협정의 조속한 체결과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조도 강구한다.

| 전기저널 편집팀 |

